



한국주택협회, 중국방지산업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한·중 주택·부동산업의 상호 발전 추구

2006년 12월 14일 한국주택협회가 중국의 주택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방지산업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주택·부동산업에 대한 현안 검토와 문제점 해결 등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양 협회간 협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북경에서 이뤄진 양 협회간 양해각서 체결 현장을 다녀왔다. 에디터 | 김소진 · 사진 | 고하진

한 국주택협회는 2006년 12월 14일 북경의 건설부에서 중국의 주택·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방지산업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방지산업협회 송춘화 회장과 건설부의 부사장 부비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중 양국 간 주택 및 부동산 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양 국가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되었다고 협회 측 관계자는 설명한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주택 및 부동산 업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의 주택·부동산업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 주택 건설기술 및 기업 경영관리에 대한 경험을 상호 교류할 예정이다. 또 양국 주택·부동산 업체 간의 합작 및 협력 활동 지원, 양측의 관심 사항에 대한 공동 조사 연구 등과 같은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시찰단 및 연수단의 상호 파견과 세미나, 심포지엄의 공동 개최, 공동 조사 및 연구 사항의 수행을 위

한 인원 파견과 지원도 수행하게 된다.

양해각서 제4조 제1항에 의거해 양 협회는 2007년 1월부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교환하기로 했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초기 2년간은 협회 고위급을 중심으로 시찰단을 구성하고 향후에는 주택 및 부동산 업체의 간부를 중심으로 시찰단을 구성해 양국 주택·부동산 업체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주택 건설업계의 경험과 노하우 교류 협력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중국과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에 대한 교류가 많았지만 주택·부동산업에 대한 교류는 없었다. 한국은 주택건설 분야에 대해 많은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원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양국의 주택산업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송춘화 중국방지산업협회 회장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특



수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 중국에도 주택 수요가 많아서 국내외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등 투자가 활발하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건설업체들이 소형 평형을 많이 짓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집값 안정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방주 회장은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는 어느 나라나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택 보급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400~450가구이지만, 한국은 230가구에 불과하다. 지난 20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도 시중 금리를 복리로 계산했을 때와 비슷하다. 하지만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로 주택·부동산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방지산업협회는 전국 각지의 방지산업협회와 부동산 개발·관리·시장 거래 및 증개·유지 보수·인테리어 등 1000여 개 업체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 단체다. 이 협회는 부동산 개혁과 발전 이론 및 정책을 연구하고 부동산 개발 계획 수립과 국내외 부동산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의 수집을 통해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주변 국가의 민간 사회단체와 우호 거래를 하고 경제, 기술, 학술 방면에서 합작·교류하고 있다. 협회에는 부회장 10명, 상무이사 및 부상무이사 379명과 함께 12개의 전문 위원회와 7개의 업무기구로 나뉘어져 있다. ☎

송춘화 중국방지산업협회 회장

한국주택협회와 중국방지산업협회가 중국 북경 건설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현장에서 송춘화 회장을 만났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업계의 현안,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춘화 회장은 1940년 11월생으로 1966년 청화대학 건축학부를 졸업했다. 감속성 란주시 부시장과 감속성 건설위원회 주임, 건설부 총계획사 겸 방지산업사 사장, 장춘시 시장, 건설부 부부장(차관급)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중국방지산업협회 회장과 중국 건축학회 이사장, 건설부 주택사업화 전문가 위원회 주임 위원직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최근 개발업체들이 큰 평형의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작은 평형은 잘 짓지 않는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도시 내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6.7㎡였는데, 2005년에는 26.11㎡를 차지했다.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면적은 90.80㎡인데 건설사들은 보편적으로 144㎡를 공급하고 있다"며 "2006년 10월 북경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10.7%, 심양은 9% 선이었다. 국민들은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집을 살 여력이 없다고 불만이 많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오르는 주택 가격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인구가 많아 물과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면적을 최소화하는 아파트를 짓도록 정부가 지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한·중 양국은 비슷한 점이 많다. 더욱이 국민들의 주택난 해소와 주택 가격 안정 등 양국 모두 비슷한 현안을 두고 해결하려는 점 또한 비슷하다. 한국은 선진 도시의 환경 개조 사업을 위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상호 방문을 통해 건설 부지의 시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의 관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송춘화 회장은 밝혔다.